

##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 사례를 중심으로 —

房錫炫\*

### 〈目 次〉

- |                              |                                       |
|------------------------------|---------------------------------------|
| I. 서 론                       | IV. APII 구축을 위한 한국의<br>초고속 분야 국제협력 전략 |
| II. 아·태 정보통신기반의 추진배경<br>과 과정 | V. 결 론                                |
| III. APII의 개념과 추진 방향         |                                       |

### 〈요 약〉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화기반이 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NII 개념을 세계로 확대한 범세계초고속정보통신기반(GII)의 구축을 시초로 여러 국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제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1994년에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을 사례로 하여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방안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협력 노력이 갖는 국가전략적 함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APII의 추진배경과 과정, 그리고 APII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고찰한 후 APII 구축을 위한 한국의 초고속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을 고찰하였다. 이런 전략으로는 국제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의 능동적 참여, 국제 기술개발협력 강화, 공동시범사업 추진, 국제교류의 확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런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은 우리의 경우 인력자원(HRD)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과 협력을 추진하면서, 선진국과는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화과정에서의 국제간 공조체제가 필요한데, 특히 21세기는 지역주의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우리가 속해있는 APEC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I. 序 論

냉전 종식 이후 정보·통신분야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美國은 21세기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정보통신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독자적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범유럽 통신망(Trans-European Network:TEN), 싱가포르는 IT 2000, 일본은 新社會資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KII)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세계적인 정보화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움직임은 각 국가 영역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잇는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NII의 개념을 세계로 확대한 범세계초고속정보통신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의 구축을 주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고, 일본은 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아시아정보통신기반(Asi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21세기 세계 교역의 중심지가 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sup> 한국은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情報共同體”的 구축이라는 APEC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와 APEC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Resolve, Bogor, Indonesia, November 15, 1994.

한국의 이같은 제안은 21세기의 주도적 산업으로서 情報通信產業의 중요성과 정보통신분야를 둘러싼 급속한 國際環境 변화에 비추어, 과거 개방 압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외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APII 구축 제안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혹은 지역 차원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시도에 개발 도상국의 이해를 반영시키면서 세계 정보통신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APII 구상은 또한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정비하고 통신분야 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의 國際競爭力を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제조업과 기본통신수단에서는 선진국에 대등한 수준에 접근하였지만 전반적인 정보화 國家戰略과 첨단기술의 경쟁력은 아직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민간부분의 정보기술 활용도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선진기술의 확보와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위해서, 나아가 情報化社會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APII 추진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함으로써 우리의 정보화와 先進國 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PII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협력방안과 전략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협력 노력이 갖는 국가전략적 함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 II.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추진 배경과 과정

### 1.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 구상 제안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 모인 APEC 경제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라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내의 정보통신기반구조를 확충, 고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에는 동 회의에서 APEC 회원경제체 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을 위한 전문적 협력체계의 일환으로서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한국이 첫 개최국으로 결정되었다.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는 APEC 회원경제체들의 전기통신과 정보산업을 관掌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최고책임자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보

통신기반구조 擴充과 이를 통한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에의 接近과 利用을 확보하기 위한 회원경제체간의 協力方案에 대해 논의하는 조직이다.

## 2.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의 추진 과정 및 의의

### 가.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의 추진 과정

한국 정부는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준비체계를 정비하였다.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 기획단이 '95년 1월에 발족되었으며, 이어서 장관회의의 의제개발 및 협력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APII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유관부처간 협력과 자문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유관부처 국장급 8명으로 구성된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APEC 통신 · 정보산업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각 회원경제체의 해당분야의 책임있는 고위관계관들이 사전에 의제를 정하기 위해 일련의 토의와 조정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장관회의 이전에 고위관계관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SOM)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제11회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95. 2. 22~24)에서 한국정부는 아 · 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기본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장관회의 및 두 차례의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s Senior Officials Meeting: TSOM) 일정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合意導出에 성공하였다.<sup>2)</sup>

APII의 효율적인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개최를 제안한 제1회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가 두 차례의 고위관계관회의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95년 5.29~30까지, 말레이지아를 제외한 17개 APEC 회원국의 총 189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APEC 통신 · 정보산업 장관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각국의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擴充하고 高度化하며, 국가간의 자유로운 連動을 추진하여 APEC 을 하나로 연결하고 역내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APII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sup>3)</sup>

2) Joint Statement of APEC Ministerial Meeting, Osaka, Japan, November, 1995.

3) Kim, Jai-Jun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APII):A Korea Perspective, KISDI-OECD Joint Conference 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Seoul, April 26-28, 1995

회원경제체들은 우선 APII는 ‘아·태지역내 개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반을 접속시킴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하나로 통합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APEC 회원국간의 협력의 틀’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회원경제체들은 APII의 구축이 보고르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이며,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루고 경제공동체로서의礎石을 다진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그 추진 의지를 결집하였다. APEC 통신 정보산업 장관회의 공동발표문에서는 APII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APEC 통신 정보산업 장관회의 공동발표문에 제시된 국제협력 분야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 협력</li> <li>– 국제 표준의 설정 추진</li> </ul> </li> <br/> <li>2. 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반의 현대화</li> <li>– 통신망, 서비스 및 응용을 위한 자국내 시장 및 세계 시장의 개발</li> <li>– 행정 정보통신망 시범사업</li> <li>– 공동 시범사업</li> <li>– 상호접속(interconnectivity) 및 상호연동(interoperability) 증진</li> </ul> </li> <br/> <li>3. 내용/정보 및 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데이터거래(EDI)의 장려</li> <li>– 데이터베이스의 공동개발</li> <li>– 선도시협망의 상호접속 및 정보공유</li> <li>– 사회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정보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li> <li>–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부의 공공 정보가 보다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도적 사업분야</li> </ul> </li> <br/> <li>4. 인력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li> <li>– 인력자원 교류</li> </ul> </li> <br/> <li>5. 정책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 경제체와 선진 경제체 간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정책토의</li> <li>–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방안</li> <li>– 시장 접근에 대한 기술적 및 행정적 장벽 제거</li> <li>–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li> </ul> </li> </ol> |
|---|

서울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은 “모든 회원경제체 내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목표와 원칙의 개발은 가능한 한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원칙에 附合되고 相互補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역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서울 선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원칙은 <표 2>에 표시된 바와 같다.<sup>4)</sup>

<표 2>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원칙

#### APII의 5대 목표

1. 상호 접속되고 연동 가능한 역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충
2. 정보통신 기반구조 발전을 위한 회원경제체간 기술협력의 장려
3.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의 증진
4.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류의 강화
5. APII의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환경 조성의 장려

#### APII의 10대 핵심 원칙

1. 회원경제체 각자의 실정에 따른 자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장려
2. 경쟁 주도적 환경의 증진
3.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의 장려
4.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체계의 조성
5. 회원경제체간 협력의 강화
6.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통신 기반구조 격차의 축소
7. 국내 법률과 규제에 상응한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공중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8. 공중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및 접근 보장
9.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포함한 정보내용의 다양성 증진
10.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반구조의 구축을 위해 자국적 혹은 지역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기 서로 다른 원칙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서울 선언문에서 보여진 APII의 10대 원칙과 지금까지 발표된 각국 및 지역경제협력체들의 정보화추진 원칙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4)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반구조를 위한 서울 선언문(1995.5.30).

&lt;표 3&gt; 각국의 정보화 추진 원칙 비교

번 호	내 용	1) 미국	2) EU	3) 일본	4) G7	5) APEC	6) 한국
1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 장려	○	○	○	○	○	○
2	공정한 경쟁의 촉진	○	○	○	○	○	○
3	공중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 인 접속 보장	○	○	○	○	○	○
4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규범의 확립	○	○	○	○	○	○
5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	○	○	○	○	○
6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의 존중			○	○	○	
7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화 격차 의 해소			○	○	○	
8	국제 협력의 강화					○	○
9	지적재산권 및 사생활보호와 데이 터의 안정성 보장					○	○
10	각 국가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촉진의 장려					○	

- 註 : 1) ITU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94. 3. 부에노스아이레스)  
 2) EU Action Plan “정보사회를 위한 유럽의 길”('94. 8.)  
 3) 일본의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95. 2.)  
 4) G7 정보통신서미트('95. 2. 브뤼셀)  
 5)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95. 5. 서울)  
 6) 정보화촉진기본법('95. 8.)

#### 나. 장관회의 개최의 의의

제1회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증진 및 APEC  
 이 경제공동체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핵심사회자본인 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을 위한 회원국간協力의意志를 구현한 회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APEC 지역 최초의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주최함으로써  
 국가의 역량을 드높였고, 동시에 아·태 지역에서의 국위를 제고시켰으며 정보通  
 신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통신·정보산업 장관  
 회의는 한국이 주도하는 APII 구성을 본격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아·태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협력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또한 제2회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가 호주에서 개최됨으로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가 아·태 지역 정보통신 분야 最高 協力機構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선진국 민간부문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추진 압력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정보통신분야 협력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3. 서울 장관회의 이후의 APII 추진 현황

#### 가. 제12회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

제1회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서울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實務的 차원의 모임으로서 제12회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WGT)회의가 '95. 9. 5~8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APEC의 16개 회원국(말레이지아, 멕시코는 불참) 및 150여 대표단이 참가한 제12회 WGT는 크게 4가지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 구조 개편, 오사카 각료·정상회의시 제출할 정보통신분야 行動計劃의 검토, 보고르 선언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方案研究 및 技術應用 분야에 대한 새로운 提案의 檢討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통해 제12회 WGT는 APEC의 공동목표인 APII 구축을 위한 進一步의 계기가 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 장관회의에 대한 논의

서울 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은 WGT의 새로운 목표와 철학적 배경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되었다. APII는 APEC의 공식 목표로서 각국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실무회의의 構造改編, 실천계획의 수립 등의 주요 이슈가 모두 서울 선언문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② 오사카 APEC 장관회의시 제출될 실천계획(Action Plan)의 검토

제12회 WGT에서는 '95년 11월에 개최될 오사카 각료·정상회의에 제출할 정보통신분야의 실천계획을 다음 세 가지 분야로 검토하였다.

- 공통정책개념(Common Policy Concepts) 분야
- 공동활동(APEC Joint Activities) 분야
- APEC 회원국간 정책/활동교류(Dialog on Member Economies' Policies/Activities) 분야

공통정책개념분야에서는 APII의 5대 목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IVANS 교역, 형식승인 절차의 조화, 상호인증 촉진의 세 가지 분야에서 실무그룹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자료수집 활동을 통한 정보통신기반 및 규제환경에의 이해도모, 전자거래를 통한 交易增大 촉진, 아·태 정보통신기반구조(APII)

의 조기구축 도모, APEC 전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인력자원개발(HRD) 프로그램의 活性化 및 技術交流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APII 실현을 위한 공동활동분야에서는 다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단기계획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중장기계획
- 비즈니스 원활화
  - Data Compilation Activities
  - Electronic Commerce Activities
- 협력
  - Infrastructure Activities
  -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 ③ APII Test-bed Project

서울 장관회의에서 제안된 APII Test-bed Forum이 한·일 양국의 공동체안으로 수정되어 APII Test-bed Project로 채택되었다. '96년 6월경에 제1회 Forum을 한국이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APII Test-bed Forum은 정부, Test-bed 운영자,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관련 연구기관 및 이용자그룹들로 구성되어 정보통신기반구축에 따른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協力의 장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이 제안한 APII Test-bed Interconnection Project는 G7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APEC 회원경제체간 시협망의 相互接續, 상호운용성 개선과 연구, 의료, 교육 등의 응용개발을 위한 시험프로젝트이다.

#### 나. 제13회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

제13차 실무그룹회의가 1996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16개 APEC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기통신그룹 구조개편, APEC Action Plan 준비내용 발표 및 제2차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개최 협의, Steering Group별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 III. APII의 개념과 추진방향

### 1. APII의 개념

APII는 APEC 회원국들의 정보통신기반구조를 확충 및 고도화하고, 국가간 통

신망을 연동하여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APEC 회원국간 협력체계로서 기술개발, 정보통신망의 확충, 정보의 원활한 유통, 인력자원, 그리고 정책 및 제도라는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APII는 아·태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나가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정보통신기반구조擴充 및高度化를 통하여 회원국간 격차를 해소코자 노력하고, 자유롭고 원활한 정보유통이 가능토록 정책 및 제도 등 역내의 정보통신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APII는 아·태 지역의 産業高度化와 交易 및 投資自由化를 지원함으로써 회원국 복지의 均衡的 향상 및 共同繁榮에 기여하고, 회원국간의 시간적·공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APII는 시애틀 및 보고르 선언에서 채택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라는 APEC의 목표와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아·태 지역의 핵심적인 기반구조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2. APII의 협력 분야

제1·2차 정보통신 고위관계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APII는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망, 정보, 인력, 정책 및 규제제도를 핵심요소로 하는 APEC 회원국간 情報通信協力體系이며 현재 논의 혹은 추진 중인 각 부문의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sup>

### 가.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

APII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사항은 필요한 요소기술의 확보와 그 확산(diffusion)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확보와 확산은 회원국간의 협력 개발과 기술교류에 의해 더욱 촉진·가속화됨으로써 회원국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역내 동시 情報生活圈 구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APII의 소요 기술은 크게 나누어 정보의 수용 측면에서 정보통신 단말 및 서버 기술, 정보의 검색 및 user interface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들 수 있고, 정보의 응용 측면에서는 각종 S/W기술, 응용시스템기술 등을, 정보의 유통 측면에서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생산 및 운영관리기술, 시스템간 상호연동기술, 정보보호 기술 등을, 정보의 전송 측면에서는 제반 전기통신기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5)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반구조를 위한 서울선언문(1995. 5. 30)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회원국간 새로운 기술의 협력개발, 기술의 상호교류, 표준화, 회원국간의 협력연구망의 구성·운영 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정보통신망분야 협력

정보통신망분야에서의 협력은 크게 나누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지 못한 회원국의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사업과, 그리고 아·태 지역을 하나로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회원국간 연동체계, 전송체계, 운용체계 측면에서의 협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서는, 먼저 회원국 통신망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과 직접적인 투자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원국간 선도시험망(Test-bed) 운용에의 공동참여 및 연동시험과, 그리고 통관, 관세 및 조세, 출입국관리, 환경, 기상, 범죄수사 및 공안분야 등 회원국간 정부차원에서 쉽게 추진할 수 있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연결 운용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다. 정보분야 협력

정보분야의 협력은 문자, 음성 및 화상데이터의 유통 활성화와 회원국간 EDI 및 각종 정보의 유통(transaction) 시스템의 공동구축, DB 및 응용시스템의 공동 개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내 자원교역 및 노동력 이동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협력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정보 및 특허정보의 교류, 그리고 역내 정보의 교류 및 공개에 대한 勸告案 작성 등은 회원국간 정보분야 협력사업으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라. 인력개발분야 협력

인력의 개발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더욱 강화되어져야 할 분야이다. 인력개발분야의 협력은 크게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회원국간 인력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경우 필요한 기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적 조직의 설립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간 인력교류의 경우 다양한 협력사업 과정에서의 기초인력과 전문인력의 교류활동 외에도 협력의 효과적 수행과 조정을 위해 고위급 차원의 교류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마. 규제 및 정책분야 협력

규제 및 정책분야 협력에 있어서의 중점은 민간부문 참여와 경쟁 도입의 활성화

를 위한 環境 조성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조성이 先決課題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역내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교역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회원국간 인증제도의 상호인정,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제도 및 요금정산 체제의 개발, 회원국간의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公正한規則의確立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3. APII의 추진 방향

한 나라의 정보통신기반구조와 향후 그 발전방향은 그 사회가 유지해 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APII의 이상은 아·태 지역의 개별국가와 민족의 多樣性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어지는 가운데 회원국간 협력이라는 고리에 의해 아·태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있다. 따라서 APII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아·태 지역의 개별국가와 민족들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론이 존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결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APII의 추진은 개별회원국이 추구하는 정책의 固有性과 獨創性의 바탕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PEC 회원국들의 정보통신 발전 수준의 격차는 매우 크다. 현재 APEC회원국들은 100인당 전화회선수가 1회선도 못되는 국가에서부터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정보화가 크게 진척된 정보통신의 초선진국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의 수준에 따라 그 역할분담과 기여의 내용도 差別化되어야 하고, 정보통신 수준이 발달한 나라는 협력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 수준이 덜 발달한 나라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국의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 情報格差의 해소와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APEC의 목적과 비전의 달성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전단계와 회원국간 정보통신수준의 격차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결여된一律의 접근방법은 회원국 경제복지의 균형적 향상 및 아·태 지역의 경제 공동체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원국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APII의 추진은 회원국간 정보통신기반구조의 격차를 緩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협력과제별로 회원국간의 격차를 고려하여 그 추진 속도의 완급과 優先順位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PII의 추진은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새로운 시장기회의 적절한 활용은 고용의 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용자 편익증진을 통하여 회원국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부문의 創意力과 活力은 이러한 과정의 진전을 더욱 촉진하고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PII가 추구하는 비전을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창의력과 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및 규제 환경이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지향하도록 조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고어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내 NII와 이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킨 GII와 일본이 주도하는 APT가 제시한 AII가 현재 아·태지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제시한 APII는 미국의 NII나 일본의 AII와 같은 타 지역 혹은 세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상들과 相沖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APII는 전 세계적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실현을 촉진시킬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국가 혹은 소수의 몇몇 국가가 주도하는 초고속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구상들은 세계 정보통신기반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 체제는 아니다. 이는 여타국들의 관심사가 간과되는, 또 하나의 G-7 혹은 미국식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APII는 開發途上國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통신기반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APII의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점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각 국가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계획을 개발한다.
- 2) 각 국가들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계획을 상호조화시킨다.
- 3) APEC 전역에 걸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지역차원의 계획을 수립한다.
- 4) APII를 세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 통합시키기 위한 지역차원의 계획을 수립한다.
- 5) APII를 세계 정보화사회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APII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APII의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주요 활동
1단계(1996~2000)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WGT(Working Group on Telecommunication)의 관련 프로젝트그룹 참여</li> <li>- APII Test-bed Forum에 참여</li> <li>- 會員國간 정책교류 확대</li> <li>- 인력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li> <li>- 중진국과의 情報交換 및 협력체계구축</li> </ul>
2단계(2001~2010) : Test-bed 구축 및 시범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시범망(Test-Bed) 상호개방을 통한 共同研究</li> <li>- 개도국 정보통신망 現代化사업 지원 및 협력</li> <li>- 고도 정보통신기반 요소기술별 회원국간 共同 연구 개발체제 구축</li> <li>- APII 시범사업추진</li> </ul>
3단계(2010~ ) : APII의 본격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後進國 망구축사업에의 참여</li> <li>- 국가별 통신기반의 상호연동성 공동연구</li> <li>- 국제협력차원의 公共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용</li> <li>- 국가간 초고속정보통신 상용서비스 제공</li> </ul>

#### IV. APII 구축을 위한 한국의 초고속분야 국제협력 전략

##### 1.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과제

우리나라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APII에 成功的으로 연동시키기 위해 서는 APEC 회원경제체간 相互補完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다자간 협력과 지역협력,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책,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초고속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을 정한 바 있다.<sup>6)</sup>

- ① 다자간 및 쌍무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 ② 선진국과의 기술개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및 세계시장 공동 참여방안 모색
- ③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국가들과의 공동시범사업, 인적, 정책적, 기술적 교류

6) 통신개발연구원, 초고속정보통신 국가전략:정책방향, 1995.

## 확대

### ④ 표준화 및 정보통신정책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정보통신부에서 설정한 이러한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APII 구축을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는 국제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能動的 참여, 국제 기술개발협력 강화, 공동시범사업 추진, 국제교류의 확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등의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5가지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제협력의 전개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국제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의 能動的 참여

우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제안한 국제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자체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의 구축은 물론 EU, 싱가포르 등과의 협력 하에 소위 범세계 초고속정보통신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각국 통신망간의 국제적 연동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적 토의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부 선진국이 주도하는 GII에서 개도국 배려 문제를 통한 개도국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지난 2월 브뤼셀 G-7정보통신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범세계적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8개 원칙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 보장과 후진국에의 관심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협력 필요성의 인식이다.

다음으로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實質的인 協力方案을 講求해야 한다. EU, NA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시대에 고립을 탈피하는 한 방안은 우리가 속해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인 APEC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1989년 APEC이 처음 창설될 때부터 우리 나라는 상당히 主導的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금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정보통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APII 구축과 일본이 주도하는 AII가 전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구축을 競爭的으로 촉진시킬 것임은 분명하나 相互協力의 擴大가 필요하다.

APII의 추진을 위한 APEC WGT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APEC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95년 9월 상해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 시 일본의 ‘상호접속과 상호연동을 위한 초고속선도시험망 사업(APII Test-bed Project for Inter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제안과 한국의 ‘초고속선도

시험망 협의체(APII Test-bed Forum)' 제안을 엮어서 APPI Test-bed project를 공동제안한 것은 APEC내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3. 국제 기술개발협력 강화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가간에는 서로 探索·牽制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협조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선진기술의 전략적 도입과 함께 핵심애로기술을 早期 確保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선진국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活性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기술개발과 아울러 특히 초고속 관련 Software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은 정보화의 수준으로 볼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情報化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정보화 격차, 즉 정보 자원의 지역간 격차 및 국제적인 정보 유통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실익도 추구하는 유연한 외교적·정책적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수입된 기술보다 우리 기술이 개도국 경제환경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개도국과의 기술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 정보통신시장에의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정보통신 국제협력사업에 초고속분야의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주요 협력분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국제기술동향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개발과 표준 규격의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APII 구축과 일본이 주도하는 AII가 전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구축을 경쟁적으로 촉진시킬 것임은 분명하나 아시아지역에서 정보통신의 중심부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영종도의 國際情報都市化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 광주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은 물론 외국 지방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공동시범사업 추진

지난 2월 브뤼셀 G-7정보통신각료회의에서 범세계적 정보통신 협력증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관련 국제적 정보망 접속, 초고속 상호연동성 구축 등

11개의 시범사업을 2000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런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서 향도적 기능을 할 것이며, OECD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가 향후 초고속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 기술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초고속 응용서비스를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및 공동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APEC WGT, PECC Triple T를 통한 지역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域內通信市場開放과 通信交易障壁 除去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원격 교육, 원격진료 등 초고속 응용서비스를 위한 域內協力を 추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각국의 선도시험망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5년 9월 상해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시 일본의 ‘상호접속과 상호연동을 위한 초고속 선도시험망 사업(APII Test-bed Project for Inter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제안과 한국의 ‘초고속선도시험망 협의체(APII Test-bed Forum)’ 제안을 엮어서 APII Test-bed project를 공동제안 하였다. KII, APII, GII간의 원활한 상호접속과 相互連動을 위한 國際協力이 필요하다.

## 5. 국제교류의 확대

국제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회의 및 세미나 추진, 주요 국가와의 인적교류 확대, 민간기관 또는 연구기관간 기술정보교류 채널 구축, 지방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 초고속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를 협력국과 공동개최 또는 교환개최하고 국내외 각종 세미나에 상호 공동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OECD ICCP와의 적극적인 情報交流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주요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자간 협력으로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간의 쌍무협력은 단순한 우의적 정보교류를 넘어서 제3국에의 共同進出까지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양국은 지난 5월 양국 정보통신장관간 통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7월 제1차 통신협력위원회(KSTCC)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한·싱가포르 멀티 미디어 실무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은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루하여 여타 국가의 모델케이스로 부상하였다. 국가통신망건

설에 있어서 자본, 기술, 인적 자원의 3대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인력자원개발(HRD)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인력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서 개도국 기술인력 양성에 一造할 수 있다.

셋째, 민간기관 또는 연구기관간 기술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협력 양해각서 교환 등을 통한 유사 연구기관간 협력을 유도하여 技術移轉을 促進시킨다. 민간정보제공사업자의 DB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하여 정보의 교환 및 공동사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의 DB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지방정부와 다국적 기업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정보사회의 구축이 중앙정부간 국제협력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은 전세계적 경영전략을 구사하며 국제적 표준설정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그들 스스로 세계정보사회구축에 핵심적 공헌을 하고 있다. 향후 국제협력은 지방정부와 다국적 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 6.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선발개도국으로서 선·후진국간 교량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역량의 극대화 및 외무부, 통산부, 과기처와 정보통신부간의 部處利己主義를 초월한 정보통신분야 통상외교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의 선출직 출마와 고위직 근무확대에 노력하고, APEC이 OECD에도 相互影響力を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잘 활용하며, 기존의 국제기구들을 개별적으로 보던 입장을 종합개념으로 파악해서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국제적 표준기구와의 교류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 체제 출범과 더불어 정보화의 추세는 국제적인 情報流通과 관련된 여러 가지 下部構造 및 규칙의 체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위성방송과 시장지배력 관련 標準設定이, 제도적으로는 교역, 금융, 통신 관련 하부구조의 구축 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의 정보화는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표준문제로 彙結된다는 점에서 ISO,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회의 및 세미나 참가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ISO,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전담 공무원 과견 등을 통한 주요선진국의 標準化 전문기관과 국

내기관간의 協力窓口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結論

한국은 짧은 기간에刮目할 만한 通信產業의 成長을 이룩하여 여타 국가의 모델 케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國家通信網建設에 있어서 자본, 기술, 인적 자원의 3대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인력자원개발(HRD)에 중점을 두고 對開途國 協力を 추진하여야 한다. 선진국과는 技術協力を 통해 국내기술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對外開放 스케줄을 투명하게 하여 불필요한 通商摩擦을 피해야 한다. 국내시장개장의 對價로 외국의 通信市場 진출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내통신시장의 競爭力 提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國際貿易規模는 계속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상 문제에 있어서 방어 일변도의 입장은 障碍要素가 될 수 있고 전체적 국제경제發展方向에의 同參을 저해하게 된다. 정보화과정에는 국제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21세기는 地域主義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E.U., NA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로 대표되는 多者主義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현실하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保護主義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新孤立主義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유일한 地域協力體 APEC을 적극 활용하여야겠다. APEC이 OECD에도 相互影響力を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국제기구들을 각각으로 보면 입장을 綜合概念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향후 OECD가입을 통해 미래의 G-10의 하나로서 世界新秩序 形成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知識產業化과정에서 정보통신의 발전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한 國際競爭 및 技術開發이 시급하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Resolve, Bogor, Indonesia, November 15, 1994.

Buenos Aires Declaration on Global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Conference, March 21-29, 1994.

Chairman's Report, The first Senior Officials Meeting for the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Seoul, March 29-31, 1995.

Joint Statement of APEC Ministerial Meeting, Osaka, Japan, November,  
1995.

Joint Statement of APEC Ministerial Meeting, Jakarta, Indonesia, November,  
1994.

Joint Statement of APEC Ministerial Meeting, Seattle, U.S.A., November,  
1993.

Katz, Rual Luciano, *The Information Societ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1988.

Kim, Jai-Jun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APII) : A Korea Perspective*, KISDI-OECD Joint Conference 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Seoul, April 26-28, 1995.

김재철, 국가기간전산망저널, KAIST, 1994. 6.

양유석, “각 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전략 비교와 과급효과의 예측”, 국내외  
정보통신시장 및 정책 동향, 1995.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산업 발전 전략, 정책 연구 95-02, 1995.

통신개발연구원, 초고속정보통신 국가 전략 – 정책방향 –, 1995.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의 경제적 과급효과(1994-  
2015), 1995.